

[제직수련회 소식]

2004 제직수련회! 바로 오늘입니다

2004년도 제직수련회가 “주님의 가족 · 주님의 손발”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교회 중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주일)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내일 월요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식사 후 특강이 진행된다(우측 일정표참조).

수련회 주제에 따라 첫날은 “주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담임목사 특강과 올해 양육사역에 대한 전반적 안내, 식사 후 교구별 모임을 통해 교구 리더들과의 만남과 교구사역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된다. 둘째날은 저녁식사 후 “주님의 손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교회의 사역 방향에 대한 담임목사의 특강이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주님의교회에 속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각 위원회별 임역원 등이다. 양일간의 저녁식사가 권사회의 손길로 준비되며,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해 자모실과 탁아방을 운영한다.

당회원, 교구사역자, 제직회 각부서장 및 부서원, 안수집사, 권사, 교회학교교사, 찬양대원, 찬양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안내

2월8일	시간	내용	담당	장소
(일)	4:00 - 4:20	찬양과 기도	김현령 전도사	중예배실
	4:20 - 5:40	특강1. 주님의가족	문동학 목사	중예배실
	5:40 - 6:00	양육사역 소개	김성관 목사	중예배실
	6:00 - 6:40	식 사	권 사 회	식당
	6:40 - 7:40	교구별모임	교구 목사	아래참고

2월9일	시간	내용	담당	장소
(월)	6:30 - 7:30	식 사	권사회	식당
	7:30 - 7:40	찬양과 기도	이호 목사	중예배실
	7:40 - 9:00	특강2. 주님의손발	문동학 목사	중예배실

교구모임 안내

교구	교구목사	장소	교구	교구목사	장소
1	정영환	중예배실	5	우동윤	찬양대실
2	이창현	소예배실	6	김성관	유치부실
3	정희성	초등부실	7	이 호	소년부실
4	윤덕영	제3집회실			

** 자모실 - (고) 무용실 탁아방 - (중) 무용실

[신앙사경회 강사 안내]

『감자탕교회 이야기』를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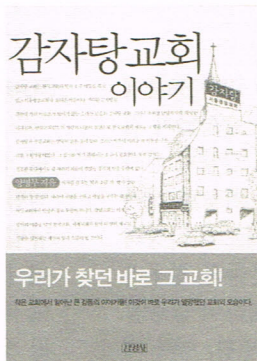
『감자탕교회 이야기』는 커다란 감자탕집 간판에 가려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의 셋방살이 교회인 서울광업교회(조현삼 담임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세간에 회자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다시 보게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광업교회는 한국교회에 많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재정을 100만원만 남기고 집행하며 예산의 30퍼센트 이상을 구제 · 장학 · 선교사업에 쓰는가 하면, 매년 5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개척교회에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모든 재정을 100퍼센트 공개하는 투명한 목회를 실천하며, 목적 현금과 찬조금을 멀리하고 십일조로만 구제하고 십일조로만 선교한다. 이렇듯 셋방살이 작은 교회가 하나의 커다란 저력을 보여주기에 조현삼 목사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큰 몫을 했다. 그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곳은 일에 앞장서며, 신도들의 수차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적은 사례비만을 받으며 늘 하나님

과 성도들의 종이라는 섬김의 자세로 목회를 한다.

『감자탕교회 이야기』의 저자는 리더십 전문가이자 23년의 신앙 생활을 해온 크리스천이다. 평소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던 그는 이 책을 통해 23년간의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교회를 깊숙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리더십 전문가가 바라본 광업교회는 한마디로 한국교회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다. 리더십과 기독교가 만나서 어떻게 성서 속의 기적을 세상에서 체험하고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 리더십에 대한 최초의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 존경과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신도들, 초대교회의 순수성으로 비전 있는 목회철학과 아름다운 목회방법을 실천하는 목사, 양적 성장을 거부한 질적 성장 추구 등은 양적으로만 팽창해온 한국교회 전반에 뚜렷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조 목사의 칼럼에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종이라는 표현이 평신도 입장에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 심부름꾼으로 바꾸어놓았는데 조 목사가 다시 ‘종’으로 바꾸어놓은 느낌이다.” 〈본문 중에서〉



지역주민을 고려한 주차안내에 협조를...

지난 주일 차량안내부는 3부예배를 위한 안내를 할때 운동장주차장을 일부만 허용하고 전격 외부주차로 방향을 틀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운동장이 녹으면서 자동차 바퀴에 묻은 흙이 인근 도로를 더럽히고 먼지를 일으키게 한다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취해진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등의 특별한 일이 없이 운동장 주차를 제한하더라도 차량안내위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모든 교우들에게 희망한다. 주차상황이 날씨의 정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예배시간에 임박해서 오기보다 10분에서 15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길 바란다.

전략적 선교를 꿈꾸는 도시선교부

국내선교1위원회 소속 도시선교부가 지난 1일 지원교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동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부장 강대준집사를 중심으로 좀더 발전적인 지원대책을 간구하기 위해 모였으며 교회안에 있는 다양한 팀의 협조를 얻어 전략적으로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도울 계획이다. 개척교회를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방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참여하고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중보기도 사역팀 모임

지난 3일(화) 오전11시에 교회 5층 중보기도실에서 전은숙 권사, 정영환 목사, 그리고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팀장들이 모였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릴레이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왔지만, 다른 사역자들과의 팀사역이 약했다는 점에 모두들 공감하는 모습이였다. 레위팀, 라파팀, 119팀, 미션팀, 비전팀 등 각 팀별로 조직을 정비하였고, 총무로 김선희C집사가 수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계적인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보기도실의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앞으로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는 이번 봄학기에 열리는 3기 중보기도사역자학교에서 훈련받은 후 정식 팀원이 된다.

이 시대 찾으시는 한사람이 되고자

1월 11일 4부 예배 후 '비전' 특강이 있었다. 청년부 담당 윤은성 목사의 특강을 정리해 본다.

비전(Vision)이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 의해 실현되도록 보여지고 부여되는 생각이다. 비전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열정과 역사의 흐름에 따른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한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가?' 묻고 기도해야 한다. 너무 내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시대적 사명은 보이지 않는다. 시대적 사명을 찾지 못하기에 비전이 없다. 밥벌이 인생으로 살지 말자 우리나라에 소위 엘리트라는 고급인력이 돈, 물질 등 하급가치



를 위해 살고 있다.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가치는 '예수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역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인간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에게는 앞으로 이를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다.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인 지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기도를 바꾸어보자 하나님께 '내 비전이 뭐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다. 이렇게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 제가 들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전은 순종할 준비가 될 때 알 수 있다. '넌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 제발 순종할래?'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 찬양인도자로 설 때마다 한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부르는 찬양대로만 살게 하소서'이다. 말로만, 찬양할 때만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

비전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하지 말라. 내 고집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은 정말 신나는 인생이다.

신지민 기자

율법보다는 복음, 정영환 목사

정영환 목사는 아내 김미정과 5살된 아들 정하늘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여기가 곧 하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모태신앙이지만, 대학생활동에 CCC와 교회청년부활동을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신학교에서는 구약학을 전공하였는데, 그래도 율법보다는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 강동과 송파일부지역을 포함하는 1교구와 함께, 예배위원회, 중보기도사역팀, 육군훈련소사역팀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책임이 무겁지만, 주님의교회를 더욱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섬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새로운 출발

권사회에서는 2004년 새로운 임원을 세웠다. 회장에는 이동순권사, 부회장 김은정권사, 총무 박경옥 권사, 회계 변아경 권사, 서기 이지연 권사가 선발되었다. 앞으로 권사회 모임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가질 예정이다. 1월에는 오금동에 있는 루디아의 집(맹인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을 방문하고 왔다. 주님의교회에서 교회 밖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영향력 있게 해나가는 권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여타사항을 2월 모임을 가진 뒤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매달 활동영역을 전하려 한다.

한양대학병원 마리아 찬양사역과 호스피스봉사

한양대학병원 마리아 찬양사역은 1993년부터 김정숙A 집사와 김양자 권사를 비롯한 자원하는 몇 명의 집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지금도 한양대학병원의 호스피스봉사와 찬양사역은 10년 동안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매주 넷째 수요일에 모여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할 곡을 연습한 후 병원으로 간다. 지난 1월13일에는 병원 원목실에서 열여섯 번째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봉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가 초대되어 큰 사랑과 점심식사를 대접받기도 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김양자 권사는 말기 암환자들의 임종을 지키며 장례의 모든 절차까지도 함

게하며, 늘 보은병에 죽을 만들어 환자들을 찾아 가는 김양자 권사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확신하게 된다.

김정숙A 집사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호스피스부 월례회는 1월 31일(토) 10시 30분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있었다. 윤영범, 박순향남자 집사님 두 분을 포함하여 20명쯤이 모여 김양자 권사(부장)의 인도와 김예곤 집사(총무)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윤덕영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23:4)를 걸어가는 분들의 친구가 되는 사역의 특별한 은혜와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했다. 현재 안양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영락 에니아의 집, 국립의료원, 대항병원, 보라매병원, 한양대서울병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등에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 가정에 계신 암환자를 돌보는 가정 호스피스팀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도서실은 바코드 작업 중

문화홍보위원회 도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실에는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책별로 바코드작업을 하고 있다. 쉽지는 컴퓨터 입력작업이 완성되면 도서에 대한 파악 및 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도서대여는 가능하다. 간단한 신상을 기록한 뒤에 대여할 수 있다. 책은 직접 찾아서 사서석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또한 도서기증도 1층 로비에서 계속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치하기를 희망하는 도서목록을 성도들로부터 받아 목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기증받아 꾸준한 업데이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구상중이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

청년부 성경 퀴즈 대회

(3면에서 계속)

팀, 섬김사역팀, 새가족사역팀, 문화사역팀, 예배사역팀, 인터넷 사역팀 등이 있다. 소그룹 사역은 귀납법적 성경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청년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특히 전도를 통한 쉼의 번식을 목적으로 한다. 3월 첫째주부터 모임이 시작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20여명의 조장들이 열심히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몸에 익히고 자신에게 맡겨질 조원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조장모임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 5층 청년부 2실에서 윤은성 목사와 유상철 전도사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모집



작년 가을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속에 시작된 유소년 축구클럽이 이제 제2기 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

모집대상 :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첫모임 : 3월 7일(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

훈련기간 : 2004. 3. 7 - 6. 27

(매 주일, 총 17주, 우천시 실내 교육)

오전 11시 - 12시 30분 (중등부),

오후 1시 30분 - 3시 (초등부)

강사진 : 이용수 유소년축구클럽 부장 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주님의교회

조남윤 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주님의교회

신재홍 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주님의교회

外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회비 : 7만원 (인상된 회비 내역 : 추가된 3주 프로그램 1만원 + 보험료 1만원)

접수방법 :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비와 함께 제출.

(지원한 사람이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할 수도 있다)

(초등부 교사 M.T.)

기도로 시작하는 2004년 초등부 교사 M.T.

지난 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제2차모임에서는 초등부 교사들의 M.T가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겨울 수련회에 대한 논의와 새학기를 맞는 초등부 교사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나누기 위한 색다른 월례회를 가진 것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 간의 화목과 단합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나누기 위한 이번 M.T에서는 교사들이 각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등부 박지원 부장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기본 모토는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지만 그 속에 책임의식이 더 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초등부에 자원한 교사 6명과 함께 시작하게 될 힘찬 새학기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초등부 교사 M.T가 교회에서 16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 되었다. 2004년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초등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해서 2004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서로를 소개하며,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로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초등부에 부족했던 교사를 보충해 주셨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교사와 기존 교사가 주일의 짧은 초등부 봉사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교사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귀는 시간이 되었다.

[교구 소식]

남편의 등록을 축하하는 잃은 양 천국잔치

잠실5단지 2-3구역(구역장: 박혜웅집사)은 1월 31일(토) 저녁에 한적한 어느 한식당에서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인 주인공은 이민숙C집사로서, 남편이 올 해 1월에 교회 등록을 기뻐하면서 구역식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것이다. 이민숙C집사의 남편 박찬진B씨는 구역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기뻐하였고, 구역식구들도 한 해 동안의 성령의 열매라고 자축하였다. 지난해 박찬진B씨는 '도대체 구역모임에서 뭘 하길래 밤늦게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던 박씨는 일단 한 번 참석한 구역모임에서, 김동근 이종은 집사부부의 은혜로운 찬양인도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구역모임을 경험하고는, 이제는 남편이 구역모임에 나오지 않는 모질사님의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기쁨을 토하기도 하였다. 이날은 지난해 교구목사인 윤덕영목사와 올해 교구목사인 이창현목사와 더불어 5쌍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가장의 변화를 크게 기뻐하는 아내 이집사는 "그동안 교회다니는 남편들이 있는 (여)집사들이 부러웠다"고 하자, 구역원 중에 어느 분이 "그래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집사님의 기쁨은 집사님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해주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안내

부서	날짜	장소	문의
유년부	2월 21-22일	주님의교회	김진경전도사 019-291-8371
초등부	2월 14-15일	미정	문희곤전도사 018-217-5549
소년부	2월 20-21일	미정	김보선전도사 017-741-1919
고등부	2월 22-23일	주님의교회	김현령전도사 017-354-9639

(유아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지난 주일(2월1일) 유아부에서는 주일 예배(11시 30분 시작) 이후 2부 순서로 반 별로 "멋지고 예쁜 왕관 만들기" 작업을 했다. 유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

이라는 것을 왕관을 만들어 서로 씌어줌으로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아트 풍선을 통해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진은 유아부 주향반)

(중등부 동계수련회)

2004년 올네이션스 청소년 경배와 찬양 학교에 참가하여...

중등부는 교사와 학생 포함 60여명이 지난 1월 26일~29일(3박 4일)동안, 경기도·여주·구로·중앙·수련원에서 열린 2004년 24기 올네이션스 청소년 경배와 찬양 학교에 참석했다. 전국에서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 교사 2,000여명이 함께 모여 교회학교의 부흥과 청소년의 영적 회복을 위해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중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온 1학년 한우재 친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 앞으로 신앙생활을 보다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등부 교사들은 박대길 부장 집사를 포함하여 16명이 참석하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데 자신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중등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청년부 소식)

성경퀴즈 대회를 통해 말씀의 회복 꾀해

청년1부는 1일 4부 예배 후 1층 유년부실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다. 에스더를 본문으로 하여 윤은성 목사, 유상렬 전도사와 부장 최상인 집사, 동현수 집사가 문제를 출제했고, 개인전과 사역팀별 단체전으로 이루어졌다. 문제의 난이도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쉽게 맞추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온 청년들이 답을 잘 맞추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개인전은 O,X 퀴즈로 출제되었는데 우승은 14기의 김지영 자매가 차지했다. 우승 상품으로는 앞으로 청년부 소그룹에서 공부하게 될 성경공부를 돕기 위한 한영해설성경이 주어졌다. 단체전은 9개 사역팀별로 대결하였는데 주관식 문제에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우승팀은 개인전 우승의 김지영 자매가 다시 한 번 맹활약한 섬김 사역팀이 차지했고, 2등은 예배 사역팀이 차지했으며 상품으로는 Family Restaurant 식사권이 주어졌다.

2004년도 청년부는 총 9개 사역팀과 20개의 성경공부 소그룹으로 구성된다. 모든 청년부원들은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여 교회가 감당해야할 사역들과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사역팀으로는 예배봉사팀, 선교사역팀, 편집사역팀, 나눔사역

(2면에 계속)

{교회소식}

1. 신앙사경회

2월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오후7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신앙사경회가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광염교회의 조현삼목사가, 수요일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강사를 맡습니다. 조현삼목사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단장으로 수해지역 봉사등에 헌신하며 '감자탕교회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광 Gloria"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앙사경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모실과 탁아방이 준비됩니다.

2. 육군훈련소 사역팀 모임

2월 9일(월) 오후 6:30분에 영아부실(지하 1층)에서 모입니다. 논산육군훈련소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문의: 정영환목사 011-9618-3124).

3. 당회원 수련회

2월 13일(금)~14일(토)까지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좋은책읽기 모임

2월8일(주일) 11시에 청년부 2집회실(5층)에서 모입니다. 선정된 도서를 읽고 오셔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읽을 책은 맥스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가능)

5. 친교실 봉사자 모집

1층의 친교실을 주중에도 열어 차와 음악이 있는 아늑한 대화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평일에 3-4시간씩 주1회 정도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호스피스부 소식]

4주간의 발마사지 교육

발 마사지 교육이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4주간에 걸쳐서 1층 유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첫 교육은 2월 21일(토) 10시다.

호스피스부장 김양자 권사는 "발을 주무르면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라고 말하면서 발마사지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말로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 언어인 발 마사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 누구나 무료로 참석하여 서로의 건강과 사랑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복지선교부 소식]

다음 주일은 나눔의 주일

매월 셋째주는 나눔의 주일이다. 복지선교부가 후원하는 20여개의 복지기관과 장애인기관에서는 여러 벌의 내의와 갈아입을 옷 등이 필요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나눔의 물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나눔의 물품이 연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서, 복지선교부는 다음 주일에 나눔의 물품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상담부 소식]

주일마다 열려있는 무료법률상담

주님의 교회 법률상담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지하 1층 식당 입구 옆 친교실에서 무료로 이루어진다.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일반 민, 형사 문제 외에 행정, 상속, 이혼, 세무, 환경, 회사법, 공정거래, 증권거래법,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견 변호사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고 있다.

매일 첫째 주일은 김완중 변호사, 둘째 주일은 황용환 변호사, 셋째 주일은 임병일 변호사, 넷째 및 다섯째 주일은 장현길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담당은 윤덕영 목사님이다. 간혹 변호사 간에 사전에 연락을 못하여 다른 변호사가 제때 상담에 응하지 못함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성도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아예 상담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평소 교회 사무실이나 교인수첩을 이용하여 상담을 원하는 변호사에게 주님의 교회의 성도임을 밝히고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장현길 집사

<교회 생활 안내, 오른쪽면에서 계속>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왼쪽면에 계속>